

낭비적인 생각을 버리고 강력한 생각을 가져라 .

오늘 밥다다는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찾은 자녀들과의 만남을 특별히 축하하려고 왔다. 2종의 외국인 자녀들은 만남을 축하하려는 기대 속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밥다다는 2종의 외국인 자녀들과 함께 각자의 특별함에 대해 마음의 대화를 나누려고 왔다. 각 장소마다 그것의 고유한 특별함이 있다. 어떤 곳에는 보석이 수적으로 많은 반면, 다른 장소에는 비록 수는 적어도 더 없이 귀중한 보석들이 있다. 비록 소수뿐인 특별한 보석들을 골랐어도 그들은 제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다. 그런 자녀들의 열성과 열의, 또 그들이 하는 봉사를 보며 밥다다는 아주 기쁘다. 너희는 세계의 온 사방 곳곳에서 아버지를 드러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서 특히 크게 성공하고 있다. 모든 종교에 속하는 영혼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데서 너희는 노력을 아주 잘 하고 있다. 봉사에 대한 사랑은 아주 좋다. 너희에게는 방향하며 다니던 영혼으로서의 경험이 있고 또 이제는 너희가 목적지를 찾았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자비를 가진다. 먼 데서 온 너희들은 모두, 여기에 와야 한다는 것과 많은 수의 남들도 역시 데리고 오겠다는 관심뿐이다. 비록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확고한 생각은 영혼인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는 경험을 주어왔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스스로를 밥다다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지닌 영혼이라 여기며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낭비적인 생각들로 인해 동요되는 일은 결코 없게 해라. 너희는 매 사이클마다의 가치 있는 자들이다. 앗차. 오늘 바바는 여러 그룹들을 만날 것이다. 아메리카에서 온 그룹은 바바를 만날 첫 번째의 기회를 받았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온 너희들 모두 함께 봉사함으로써 최고의 기적을 보여줄 테지? 이제 밥다다는 누가 제일 중요한 VIP들을 컨퍼런스에 데려오는지 보겠다. 최고의 VIP는 어디서 오겠느냐? (미국에서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가 VVIP들이고, 너희보다 더 위대한 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번이 이 세상의 VIP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기회다. 그들에게 행운을 만들어주기 위해 너희들은 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들은 제 스스로 이 낯은 세계에서 위대한 이들이라고 여기는 탓에, 작은 프로그램에 올 때는 존경이나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사람들을 큰 행사에 초대할 기회다. 사실 밥다다는 오직 자녀들과만 만나 마음의 대화를 나눈다. 그는 또 오직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만 특별히 온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초대받지 못했다는 데 대한 불만은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끝내기 위해 너희는 이런 행사들을 만들었다. 밥다다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밥다다를 사랑한다. 앗차.

2종의 외국인인 너희들 모두 몸과 마음으로 만족하느냐? 너희들 중 누구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겠지? 너희들의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느냐? 몸은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몸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휘둘리게 하지는 마라. 끊임없이 행복해하며 계속 춤춰라, 그러면 몸이 괜찮아질 것이다. 행복한 마음으로 몸이 기능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양쪽 모두 운동이 될 것이다. 행복은 축복 (두아)이고 운동은 약 (다바)이다. 너희가 축복과 약, 둘 다 받으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누군가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잠들기 전에 요가하며 앉아있어라, 그러면 잠들 것이다. 요가하며 앉아 있을 때 밥다다의 미덕들에 대해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너는 이 행복으로 통증을 잊을 것이다. 그 행복 없이 다만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려고 노력할 때는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고통도 역시 느낀다. 행복해하며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가 통증마저 잊을 것이다.

너희들 중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 의문이 들거나, 사소한 일에 대해 쉽게 혼동된다면 즉시 그 사소한 일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계속 전진해라. 너무 많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마라.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당장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끝내라.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너무 많이 떠오르면 그것이 너희의 단계와 몸, 양쪽에 모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유로 2종의 외국인 자녀들은 생각이라는 측면에 곱절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혼자 살면서 생각하는 그 훈련을 자연스럽게 쌓아왔기 때문이다. 이미 그것이 훈련된 탓에 너희는 여기서도 사소한 일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하느라 너희의 시간이 허비되고 너희의 행복은 사라지며, 그러면 그것이 또 너희의 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로 인해 너희는 더욱 더 생각한다. 그러므로 마음과 몸, 양쪽 다 변함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적게 해라. 생각해야만 되겠으면 지식의 보석들에 대해서 생각해라. 강력한 생각을 가지는 것과는 반대로 너희들은, “나의 배역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나는 요가를 할 수가 없어. 나는 몸 없이 될 수가 없어” 같은 낭비적인 생각들을 한다. 그런 것은 낭비적인 생각들이다. 그런 것 말고 “기억은 내 본래의 종교야” 같은 강력한 생각들을 가져라. “자녀들의 종교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이걸 못할 이유가 있겠어? 나는 반드시 이걸 할 테야. 내가 요기 영혼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누가 되겠어? 나는 매 사이클마다 아주 쉬운 요기야.” 그러므로 낭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강력한 생각들을 가져라. 너희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 낭비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생각 말고, 아버지가 이 마지막 생애 너희들이 그에게 속하도록 만들었다는 강력한 생각을 가져라. 너희가 낯은 몸을 통해서 여러 생애 걸쳐 유산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생애의 몸이 이루는 경이롭고도 위대한 기적이 아니냐? 절망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마라.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내라. 와! 내 낯은 몸의 경이로움은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준 도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와! 와!”라 하며 몸을 써라. 말을 달리게 할 때 지극한 사랑으로 손을 사용하면 말이 아주 잘 달린다. 말을 자꾸 때리면 그것은 말썽을 더 일으킨다.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다. 그것이

쓸모 없는 늙은 몸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몸을 매질하는 셈이다. 무척 행복해하며 그것을 칭송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며 전진해라. 그러면 너희의 낡은 몸은 너희를 방해하지 않고 너희에게 아주 잘 협조할 것이다. (누군가 “여기를 떠날 때 저희들은 약속합니다만, 그런데도 마야가 옵니다”라고 했다.)

너희는 어쩌서 마야를 겁내느냐? 마야는 너희에게 교훈을 가르치려고 온다. 두려워하지 말고 교훈은 배워라! 때때로 그녀는 관용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때로는 변함없고 꾸준한, 안정된 단계를 유지하는 과목을 가르친다. 가끔 그녀는 너희가 평화의 화신이 되는 과목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도우려고 온다. 마야가 온 형태를 몸으로써 겁내지 말고, 마야가 너희에게 협조하려고 왔다는 것, 아버지가 가르치는 과목을 아주 확고하게 만드는 것을 도우려고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마야는 너희의 적이 아니라 너희에게 협조하고 있다고 여겨라. 너희가 교훈을 확고하게 만드는 데 그녀가 협조하고 있을 때는 너희의 주의가 그것에 끌릴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별로 크지 않고 너희는 패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가르침을 확고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앙가드처럼 부동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마야를 두려워하지 마라.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겁주려고, “괴물이 온다!”라 한다. 너희들도 역시 모두 마야를 괴물로 만들었다. 사실 마야는 너희에게 오기를 겁내는데, 너희들이 제 스스로 약해져서 마야를 불러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너희에게 작별을 고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또 마지막 날짜를 알아내려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마야에게 작별을 고하겠느냐, 아니면 두려워하려느냐?

2종의 외국인들은 아주 빠르게 날아다니는 특기를 가졌지만 두려워할 때면 그들은 심지어 조그만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무서워한다. 하루는 엄청나게 행복해하며 날아다니지만 다음날이면 그들의 얼굴은 변할 것이다. 이제 이 성질을 바꿔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나?

이 모든 것의 주된 토대는 관용하는 힘의 결핍이다. 초창기부터 너희들은 관용하는 산스카르를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너희는 무척 빨리 두려워진다. 너희는 장소를 바꾸거나 너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바꾸지만 너희들 자신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제는 이 산스카르를 바꿔야 한다. “나 자신을 바꿔야 해!” 장소나 남들을 바꿀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바꿔야 한다. 이것을 너희의 인식에 훨씬 더 많이 간직해라. 이해하느냐? 이제 2종의 외국인들의 산스카르에서 본래 나라의 사람들의 산스카르로 바꿔라. 관용의 화신이 되어라. 너희는 이것을 너희들 자신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너희는 어느 누구에게서 멀어지지도,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백조와 황새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 그들과 갈등이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들의 의무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좋은 염원을 가지는 것이다. 완전히 안티였던 자들의 예가 몇 있는데, 그러나 좋은 염원을 통해서 그들은 도구가 된 자들보다 지금은 도리어 더 많이 앞서가고 있다. 그러므로 총력을 다 기울여서 너희의 좋은 염원을 써 보라.

만일 그래도 이걸 할 수 없다면 매 발걸음마다 지시를 받아라, 왜냐하면 때때로 비켜섬으로써 너희가 봉사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오는 브라민 영혼들에게 뭔가 걸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많은 영혼들도 역시 때로 그들 미래의 행운을 박탈당한다. 그러므로 우선 첫째로 너희들 자신이 이것을 시도해본 다음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면 도구 영혼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해라. 만일 그들이 너희가 분리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그것이 더 이상 너희의 책임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것 뿐이니 태평하다. 가끔 너희는 강요되어 모든 것을 떠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의 실수로 인해 뭔가를 떠날 때는 상대방 영혼이 계속 너희를 끌어당길 테고, 너희의 지각은 한결같이 그리로 끌릴 것이다. 그것도 역시 큰 장애가 된다. 너희가 신체적으로는 이미 떨어져 있어도 마음에는 카르마의 잔고가 있는 탓에 계속해서 끌릴 것이다. 그러므로 도구 영혼들과 모든 것을 확인해라. 이것은 카르마의 기본원리다. 강요에 의해 끊는다면 너희의 마음은 그리로 자꾸자꾸 끌릴 것이다. 지식의 화신이 됨으로써 카르마의 기본원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지식으로 충만해짐으로써 일체의 카르마의 굴레를 끝내라.

브라민 영혼들이 모두 대등할 때는 그들 사이에 시샘이 있다. 그러면 이 때문에 산스카르들의 충돌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에서 누가 너희들의 동료로 도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라. 그들을 보고 아무개가 이 의무를 행하려고 왔다거나, 아무개가 선생이 되었다거나, 또는 1등으로 봉사를 잘 하는 영혼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 말고, 누가 그 영혼을 도구로 만들었는가에 대해 생각해라. 설령 특별한 도구 영혼이 그들에게 그 의무를 주었다 해도, 도구 영혼을 도구로 만든 분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봐라. 아버지를 중간에 두면, 마야는 도망갈 것이고 시샘도 도망갈 것이다. 아버지 (밥)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죄 (팝)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너희들의 사이에서 아버지를 제거하면 죄가 저질러진다. 질투도 역시 죄 되는 행위가 아니냐? 만일 예컨대 아버지가 누군가를 도구로 만들었다면 아버지가 수행하는 과업은 뭐든 유익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것에서 뭔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이가 다 노력가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그릇되었다 해도 너희들은 좋은 염원과 함께 그것을 위사람들에게 넘겨야 한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좋은 염원과 고귀한 책임으로, 아버지를 위한 봉사가 곧 너희의 봉사임을 인식하며, 이 문제를 상급자들에게 넘겨라. 그것을 그들에게 넘기고 나서 너희는 태평해져라. 그 다음에는 너희가 그들에게 그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또 그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을 의아해하지 마라. 뭔가 조치가 취해졌느냐의 여부는 상급자들의 책임일 것이다. 너희는 그 일에 대해 좋은 염원을 갖고 그들에게 말했으며, 너희의 의무는 너희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상급자가 그 사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본다면 그 경우엔 두 번째로 편지를 써도 된다. 그러나 봉사한다는 느낌으로 편지를 써라. 도구인 자들이 너희에게 그 건에 관해서는 놔두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너희의 생각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것이 누구의 일이고, 그들을 도구로 만든 분이 누구냐? 단지 그것만 기억해라! 그가 특별한 영혼이 된 것은 어떤 특질 때문이었느냐? 그 특질을 너희들도 훈습해라, 그러면 그것이 경쟁 (리스)이 아닌 경주가 될 것이다.

이해하느냐? 결코 속상해하지 마라. 만일 누군가 무슨 말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봐라. 만일 그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그 경우엔 도구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너희의 잘못이 무엇이었던지 물어봐라. 위에서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너희의 잘못이 아니니, 그저 태평해져라. 모든 이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즉 카르마의 잔고는 모두 여기서 브라민 영혼들을 통해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람라지의 나라에서 너희를 구하기 위해 브라민들은 어디에선가 도구들이 된다. 그러니 브라민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브라민 영혼들의 카르마의 잔고는 브라민 영혼들을 통해서 정리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청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늘 행복하게 지내라. 너희들의 카르마의 잔고는 곧 끝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발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사소한 문제에 혼란해지지 않겠고 너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해라. 이해하느냐?

Blessing: 너희의 힘과 미덕들로 약한 자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고결한 기부자이며 협조하는 영혼이 되어라. 고결한 단계를 가진 가치 있고 순종적인 자녀들은 남들이 필요로 할 때 모든 힘과 미덕으로 한결같이 협조한다. 그들의 특별한 봉사 형태는 아버지에게서 이제껏 받은 미덕들과 힘을 지식이 없는 영혼들에게 기부하고 브라민 영혼들에게 협조하는 것이다. 약한 자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최고로 고결한 기부이며 협조다. 너희가 말을 통해서나 마음을 통해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받아온 미덕들과 힘을 모든 영혼에게 줘서 그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게 해줘라.

Slogan: 굳은 결의로 자기의 행운을 정하는 자들은 변함없이 태평한 상태에 머문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